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자기 이끄는 자불 두고 누굴 믿습니까

☞ 15면에서 계속

스로 알게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현혹을 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난처하게 만드는 법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넓으면 첫째 마음을 오로지, 주님도 자기한테 있고 부처님도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불'이라고 했습니다. 자불(自佛). 자기의 부처님. 또 자기의 부처님을 왜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했느냐. 나는 주인이자 주인이면서도 모든 생명이 이 오장육부안에 잔뜩 들어서 작용을 해주고 살고 있다. 그러니까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공했다 이겁니다. 나는 주인공이다, 개개인이 다 주인공이다, 주인공인 자기를 잘 알라, 진짜로 주인공을 믿어라, 주인공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자기를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보배중에도 큰 보배이며 모르는 것 없이 알고 있으니 세계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으뜸가는 보배다 이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도 그렇게 깨달으셔서 그 보배를 알았고 으리도 그렇게 깨달아서 보배를 알면 동시에 동일한 겁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지니까 그냥 일체처가 다 동일하고 마음도 동일하게 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이 마음속 여기에는 일체제불의 통신처도 되고 일체 우주의 통신처도 되고 또는 일체 만민의 통신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덤빈다 하더라도 네가 너를 잡아먹을 수 있어? 둘이 아닌데, 한다면 딱 잡아먹을 거를 멈춥니다. 우리가 우리만 말을 하고 우리만 알아듣는 줄 아십니까. 저런 돌 하나 풀 하나도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생물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쓰는 사람은 새도 와서 몸에 앉죠. 새가 왜 그렇게 앉느냐. 마음을 놓으니까. 저 사람은 가서 앉아도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앉죠.

이 태국이란 나라 여기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맹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빨리 자기가 지혜를 넓혀서 통신하라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하면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전부 해결을 하고 이렇게 돌아 원자로 다시 돌아오면 그게 보이지 않는 데서 다 해결을 해놨으니까 보이는 데로 탁 나오죠. 이게 참 묘법이면서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라면 알아둬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부처님도 무슨 부처 무슨 부처 쫘-악 해놓고 이게 엇갈리게 이렇게 배우는데 그게 아닙니다.

만명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불인 것입니다. 왜냐. 진리는 다 똑같으니까요. 만분이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해나가니까 만불이 일불이요, 일불이 만불이라.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아파서 여기다 관할때 '너만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이러는 까닭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건 자부처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준다 이겁니다. 하인을 뒀다 하더라도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야 하지 심부름 안시키는 데 우두커니 있지 뭘합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한다면 그게 약사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또 관세음보살 하면 이 관세음보살은 왜 머리에 요렇게 부처님을 요렇게 해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것은 한울을 말한 거고 한울의 종자를 말한 겁니다. 한울의 종자는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머리 위에 그걸 이고 있다. 즉 말하자면 저 종자를 받아 이고 있으니까 산하대지의 어머니다 이거야. 산하대지의 많은 생명들을 낳아서 기른다. 그래서 그 산하대지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즉 보살의 모습이다. 즉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더러 당신의 관한 건은 모두 맡아서 좀 하시오 이렇게 해서 여자가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이렇게 해야 빨리 알아듣기 쉽겠기에 이럽니다. 그러면 보살은 남편의 마음에 의해서 조건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하대지에서 기르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둘입니까 어디?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다. 일체 만물과도 둘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형성되고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올라왔으니까 미생물의 어머니 아버지도 부모는 부모죠. 허허. 축생이 됐다 하더라도 축생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죠. 그랬는데 사람으로 돼가지고도 몇바퀴 돌았거든요. 그걸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고 자식이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식이 되는데 어떻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 자식 내 부모 아님이 없다. 그리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니 둘로 보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리고 모두 자비스럽게 해라. 자비스럽게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바다는 썩은 물, 고름물, 흙물, 핏물이 다 모여와도 싫단 말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니 바다와 같이 마음을 써라. 그럼 다 받아들이면 그것을 또 분수로 올리듯이 수증기로 올려서 또 그것을 정화시켜서 물로 내려보내면 요만한 풀 한포기도 다 먹고 산다. 그러니 그러한 뜻으로써 너희는 지혜를 넓혀라. 그럼으로써 이름이 주님이고 이름이 부처인데 이름이 무엇이든 그걸 떠나서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내가 없는 이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진짜 인간이 된다. 자유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도리를 알고 이 몸을 벗어야지 그렇지 않고 한철 살다가 그냥 몸 벗고 또 여기에 끄달려서 나고 또 끄달려서 나고 또 잘못 살면 축생으로 끄달려서 몸을 받고 이러면 축생의 대접밖에는 못받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의 대접을 받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까맣게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나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세세생생을 이 몸을 받아 나지도 않고 축생의 몸도 받아나지 않고 이 세상에 다시 나서 구르지 않고 찢기지 않고 뜯기지 않고 피를 흘리며 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생 사는 동안에 이 도리를 잘 배워야만이 벗어나서 그렇게 세세생생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림 · 최주현

내마음 근본은 일체제불과 통하는 자리
진짜로 믿어야 깨닫고 감사할 일 생겨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물론 한국에도 그렇습니다만 태국에 와보니까 전부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믿는 데 뭘 믿느냐. 이 안에 자기 자불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면서도 지혜를 바깥으로 돌려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가져도 둘이 아니게 생각하고 모두 측은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고 자기 생명으로 보고 자기 모습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줄 알아야 우리가 요다음에 태어날 때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한생각이면 다 건질 수 있게끔 말입니다. 우리가 한생각이라 하면 이게 보통 그냥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보통 말로 알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한생각을 하는 거 하고는 틀리단 얘깁니다. 주인공을 믿고 진짜 생각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한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 지금 하혈을 해서 죽겠어요" 하고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그래? 알았어" 그러죠. 그러면 그 당시에 몸으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간다면 늦어서 벌써 버스는 지나가요. 그 사람은 못살리죠. 그러나 한생각이면 거기를 찰나에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전화가 오기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전화하고 한시간도 못돼서 피는 멈추고 다 나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건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뿐이죠. 네 형제 내 형제 따지지 말고 그저 불쌍한 사람 있으면 마음 내주고,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더라도 아프지 않고 모습을 벗게 해주고, 개 한 마리가 죽게 된 거를 볼 때도 '너는 그저 아프지 말고 죽어서 모습을 벗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하면 그냥 순간에 그 모습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화해서 태어나니까 '이렇게 사람대접을 받고 삽니다. 고맙습니다' 하거든요.

여러분은 말없이 말하는 거 모르시죠. 저런 나무들도 말없이 말하는 거 모르시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말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죠. 땅도 살아있고 땅도 생각이 있고 이 땅에도 망이 쳐져 있습니다. 땅속으로 이렇게 망이 쳐져 있다는 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건 왜냐? 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몸에도 전부 세포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법망입니다. 바깥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도 아무거나 들어와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잘못되는 걸 막아 돌아가는 거죠. 이 세포가 다 그렇게 돼있는 거죠. 거미줄 얽히듯 했으니깐요. 이 지구에도 그렇게 돼있듯이 땅에도 그렇게 망이 되어 있습니다. 몇층 아래는 망으로 돼있고 또 젖같이 끈적끈적하게 돼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입니다. 근본에서 나오는 에너지입니다 그게.

병원에서 호흡을 못하면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것도 산소로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질소가 75%는 그렇게 돼있다고 합니다. 산소보다도 더 윗길이죠.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정말 에너지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는 에너지를 허공에서 끌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나쁘게 쓸려면 이 수소를 얼마나 나쁘게 쓰겠습니까? 지금 수소폭탄 말입니다. 그러나 수소폭탄 그것도 그것을 잘 돌려서 연구하기에 달린 거죠. 이런 말을 자세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깨우쳐서 그 도리를 다 알 수만 있다면 그냥 끌어내려서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하게, 정말 물이 없다 한다면 바닷물을 갖다 먹게 만들고 또 에너지가 없다 하면 에너지가 달리 없이도 우리는 그 허공의 에너지를 똑같은 걸로 잡아쓸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갖추어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내면에서 통신하나 못하니 어떻게 일체제불과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일체제불은 다 전화를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없으니까 통신이 될 수가 없죠. 통신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죠. 통신처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사람마다 여기 밖에는 없어요. 그랬는데 불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전부 타의에서 구한단 얘깁니다. 주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 외에 말입니다. 어디서 자기를 위해서 그 아픈 거를 다 어루만져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저 나무의 뿌리가 자기 싹을 어루만질 수 밖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나무 뿌리가 자기 싹을 어루만지듯이 인간도 자기의 불성 자체가 바로 주처며 자기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 이 시자를 이끌어가는 그 자체 근본이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났다면 주인인 운전수가 끌고 가서 고칠 거고 먼지가 앉아서 더럽다면 운전수가 가서 깨끗하게 닦겠죠. 누굴 시켜서라도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대신해줍니까? 대신 해 주는 법은 영 없습니다.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먹는 거, 똥누는 거, 깨닫는 거, 이런 거 대신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부부지간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대신 똥눠주는 사람 보셨습니까?

불교라는 이 공부가 바로 이런 것을 뜻하지 여기다 놓고 빌고 저기다 놓고 빌고 이러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마음을 정성껏 해가지고 법당에 오시면요, 법당에 저

> **썩은물 고름물 흙물 핏물**
> **싫다 않고 다 받아들이는**
> **바다같이 마음을 자비롭게**
> **쓰면서 지혜를 넓히세요**

부처님도 내 모습과 같습니다. 이 내 몸이 부처님 몸이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인지라. 나보다 높이 보지도 말고 얕게 보지도 말라. 거지를 봐도 얕게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앨써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부처님의 그 뜻이 다 통겨서 그저 굶는 사람은 먹게 되고 헐벗은 사람은 입게 되고 또는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자유스러운 공부입니다. 이런 세상에도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아마 이 지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코웃음 칠 겁니다. 코웃음 칠 게 뭐냐 하면 지구가 무너진다 해도 지구를 요런 손가락 하나로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른 혹성이 우리 지구를 치면 큰일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내가 그 혹성이 돼서 혹성속에 들어가서 그 혹성을 끌고 멀리 가서 갖다가 버리고 오거든요. 부딪치지 않게.

'내가 뭐 할 수가 있나, 이건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안하니까 그렇지 '할 수 없는 게 어딨느냐?' 하고 들어가보세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다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좀 덜 가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럴테니까 걱정은 안해요. 언젠가는 자기 주인공을 알고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니까요.

저기 저 보살님 병원에서 암이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거를 오직 신념으로 믿고 그냥 떨쳐버린 거에요. 여지껏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로 믿는다면 감사한 일만 생기죠. 진짜로 믿지 않는다면 진짜로 감사한 일이 생길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도 안으로 찾는다면 감사한 일이 생기지만 바깥으로 찾는 사람은 절대 감사한 일이 생기질 않아요. 난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기독교에서 오든 가톨릭교에서 오든 다 그저 잘되라고 괴롭지 않게 살라고 이러는 거죠. 한 버스를 탔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한 주머니에서 허덕거리는 거지 두 주머니가 아닙니다.

진리를 한번 보세요 안그런가.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나의 불성이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생명의 근본 말입니다. 생명의 근본이 있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작용해서 대치를 할려니까 주인공이라고 이름하는 거죠. 여기 의식들도 다 한마음이 돼줘야만이 아픈데가 낫게 되죠. 간이 아프다면 간의 생명들이 싸우다가 죽으면은 다 굳어져서 그게 간암이 되는 거죠. 만약 싸움을 안하고 호응을 한다면 어떻게 간암이 됩니까? 네?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싸움을 해서 한쪽이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싸움을 안하면 죽지를 않죠. 그래서 둘로 보지 말라 이런 겁니다.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안에서 생기는 것도 너, 나 따져서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백혈병도 그렇고 다 그래요. 또 바깥에서 세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싸우는 게 있구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싸우게 되면 그냥 살이 굳어져 들어가니까 병자가 돼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모두를 둘로 보지 말라. 과거로부터 인과성, 업보성, 영계성, 세균성, 유전성, 이 다섯가지가 주둔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기가 벌여놨던 일이 현실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는 전부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다 컴퓨터입니다. 자동적인 컴퓨터요.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뭐 잘못되고 이러는 컴퓨터가 아니라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도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그게 입력이 돼 있어서 그 업보가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현실에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왜 컴퓨터냐. 과거의 일들 모두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다 여기 머리에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입력이 되는데 그 입력되었던 것이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입력한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컴퓨터 현실에도 넣어논 대로 나오죠. 컴퓨터에 입력이 안들어갔으면 안나올텐데 넣어서 입력이 돼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업보다 죄다 팔자 운명이다 이러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대로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앞서의 입력된 걸 죄 없애라 이겁니다. 왜 없애느냐.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안되는 것도 할 수 있어. 안되게 하는 것도 너. 되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오로지 거기다가 다 일임할 때 바로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어지는 거,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로이 입력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입력된 것이 현실에 나오니까 좋게 나올 수 밖에 없고 좋게 살 수 밖에 없죠. 입력이 좋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서의 입력이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어지럽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몰랐으니까 그러지만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드려서 알았으니까 절대로 나쁜 입력을 넣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로 금방 나와요. 그러니 그저 주인공에다 모르시는 건 맡기세요. 그러면 좋은 입력으로 됩니다. 절대로 자기 자부처가 자기를 못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루요 그건. 그리고 자기를 믿으라는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기를 믿으라는데, 자기 자성신을 믿으라는데 어찌 못믿습니까. 그럼 누구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자신이 주처며 주인이며 바로 불성이며 부처며 전부인데.

정말 나는 빌고 또 빕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요다음에 이런 중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가 됐으면 하는 거요. 사는 것이 공부니까 앉아도 좌선이 되는 거고 일어나도 입선이 되는 거고 드러누워 자도 와선이 되는 거고 일을 해도 행선이니까. 그저 나는 이런 거 공부하기 때문에 일을 못해 이러진 마세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저 마음이니깐요. 열심히들 해보세요.

※위 법문은 1999년 4월 25일 한마음선원 태국지원 개원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